

나주시, 대중교통 보조금 및 노선개편 시민설명회 가져

나주시는 대중교통(운수회사) 보조금을 둘러싼 각종 논란 해소를 위한 대시민 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설명회를 통해 운수회사(나주교통) 보조금 과다 지원에 대한 전남도 주민감사청구, 시민사회 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 행정 조치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특히 대중교통 관련 주요 쟁점들을 질의응답(Q&A)식으로 정리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친숙한 답변으로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분석에 따른 민선 8기 대중교통 노선 개편 추진 방향, 효과 등을 영상과 PPT 발표를 통해 공유했다.

설명회 발표(자)는 '대중교통 보조금 지원체계'(운송원가 용역사), '대중교통 보조금 개선사항 및 팩트 체크'(나주시 교통행정과), '대중교통 노선 개편 사항'(노선 개편 용역사),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첫 발표는 지선·간선버스 지원방식, 표준운송원가 정의, 방식, 지원

항목, 산정·정산 등 대중교통 보조금 전반에 대한 개념 정리가 이뤄졌다.

이어 나주시 교통행정과장이 나주교통 회계감사용역(2019~2020)에 따른 6억6천800만원 회수 조치, 전라남도 주민감사청구결과 전체 10건 조치 완료, 시민사회 고발(4건, 불송치 혐의없음)에 대한 조치 사항을 설명했다.

이에 따른 개선사항으로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지침

마련', '표준운송원가와 관련 없는 사업 별도 사업 관리 및 원가 제외', '임원 인건비 6명 중 3명 지원', '보조금 정산 관련 과업 강화', '간선 현금 수입금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제시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혁신적인 대중교통 노선개편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조금은 줄이고 대중교통 서비스는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철 기자

담양군, 규제혁신으로 주민 불편 최소화

담양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규제혁신을 통해 주민 불편 최소화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규제 발굴·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며 현장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군은 약 1년간 10차례에 걸쳐 농업·산업단지, 건축사사무소, 농협회의소, 개별 기업체 등을 방문하며 규제 완화를 위한 현장 행정을 펼쳤으며, 현장에서 접수한 의견은 민간위원 중심의 대폭 개편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완화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이후 지금까지 90여 건의 규제 건의 사항을 검토했으며 그중 10여 건이 의회 승인을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최종 완화됐다.

담양군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지금까지 완화한 규제로는 개발행위 분야에서 ▲보전·생산관리, 농림지

역의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30,000㎡ 미만까지 가능하도록 완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높이 기준인 표고를 30m 미만에서 50m 미만으로 완화하며 불편을 해소했다.건축 인허가 분야에서는 ▲용도 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용범위까지 완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개발분과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 ▲건축물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3층 이상 또는 12m에서 5층 이상 또는 높이 21m까지 완화 ▲금성·무정농공단지 내 견폐율을 60%에서 70%까지 완화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한 규제 완화로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지붕과 이격거리를 기존 밀부착에서 최대 3m까지 이격 가능토록 완화 ▲건축물 지붕 색채, 형태, 재료에 대한 규제를 의무에서 권장 사항으로 변경 또는 삭제하는 등 실생활에 관련된 인허가 규제 등을 완화했다.

/장진성 기자

화순군 급식관리지원센터 품지락 키친 프로그램 진행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어린이들의 골고루 먹기 및 저염 식습관 형성을 위한 '품지락 키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프로그램은 어린이 급식소 사전 신청을 받은 만 3~5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1차·2차 교육으로 나눠 6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진행된다.

1차 교육은 다양한 색깔의 지역 농산물을 재료로 선택한 '나만의 파프리카 인형' 만들기이다. 오감(청각, 후각, 촉각, 시각, 미각)을 활용해 채소·과일을 구분하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를 형성해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을 줄인다.

2차 교육은 '무지개 밥판 만들기'로 체험형 요리 활동을 통해 편식을 적극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또한 칼륨이 많아 나트륨 배출 역할을 하는 채소·과일 섭취의 중요성을 인지시켜 섭취를 유도하면서 저염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이다.

화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러한 프로그램들과 연계해 매월 '도레미 식단'을 통해 칼륨이 많아 나트륨 배출을 돕는 제철 식재료를 선정하고, 단계적으로 식습관의 개선을 돕는 편식 개선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장성군은 최근 전남도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한국전력공사,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 파인엔파트너스자산운용(주), KB증권(주)와 함께 데이터 센터 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장성군 제공

장성, 4천900억 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 유치

장성군은 최근 전남도청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전남도, 한국전력공사,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 파인엔파트너스자산운용(주), KB증권(주)와 함께 데이터 센터 설립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르면 장성군 남면 첨단 3지구 부지에 사업비 4천900억 원을 투자해 3만 3천㎡, 40메가와트(MW) 규모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를 구축한다. 올해 착공해 2026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주)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 설계와 설비 구축, 전반적인 운영에 참여한다.

데이터 센터 구축을 통해 100명 규모 고용 창출과 세수 확보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각종 첨단산업 활성화도 가능하다.

데이터 센터는 네트워크 서버 등

을 운영하는 전산 데이터 관리시설이다. 데이터 기반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전력 소모가 크다. 대기업 데이터 센터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분산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투자협약은 수도권 대기업 데이터 센터를 지방으로 분산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데이터 센터 지방분산정책'이 실현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유광중 기자

영광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영광군(군수 강종만)은 최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지역의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특화전략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영광군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강종만 영광군수 주재로 군의회 의원, 실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기관의 추진상황 보고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용역기관(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는 탄소중립실천으로 미래세대가 행복한 영광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등 에너지 생산 및 소비전략, 넷제로 시티 조성 등 에너지 산업 생태

계 구축 및 성장전략, 수소산업 육성 등 신산업발굴전략,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전략과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 방안 등 주민상생전략 등 5개 실천 과제에 대해 공유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수소산업 선도도시 조성,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의 활성화,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 청정 부자도시 영광을 만들기 위한 큰 그림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영광군의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설계하고 신규 사업들을 발굴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용역은 7월 중 2차 중간보고회를 통해 계획안을 재검토한 후 8월 중 최종보고회를 개최해 완료될 예정이다. /이경률 기자

공정과 상식